

첨부파일 보다 나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글로벌 해양강국!
		배 포 일	2019. 4. 30.(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 당 자	• 과장 명노현, 행정사무관 이형민 • ☎ (044)200-5310, 5315	
	해양환경공단		• 해양생태팀장 황인서, 대리 최유나 • ☎ (051)400-7961, (02)3498-7165	
보 도 일 시		2019년 5월 1일(수) 석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바다 위 순백의 신부, '노랑부리백로'를 지켜주세요

- 해수부, 5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노랑부리백로'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초가 되면 우리바다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름철새 '노랑부리백로'를 5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노랑부리백로는 백로과에 속하는 바닷새로, 이름에 걸맞게 노란색의 부리와 발을 가지고 있다. 노랑부리백로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연상되는 순백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번식기에는 뒷머리의 땡기깃과 가슴의 장식깃이 자라나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노랑부리백로는 5~8월에 우리나라 서해 연안의 갯벌, 하구, 논 등에서 어류나 갑각류 등을 주로 섭취하며 서식한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종도, 화성, 서천 등 서·남해안 연안에 약 166마리의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연평도 인근 번식지가 포화되어 유인도인 백령도에서 번식하는 것이 최초로 관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해안의 연안 개발, 인간의 번식지 방문 증가, 무인도서의 공간적 제약 등 다양한 위협요인으로 인해 노랑부리백로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에 노랑부리백로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개체수, 서식지 및 번식지를 관찰해오고 있다.

노랑부리백로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안산시는 노랑부리백로가 선재도 갯벌과 대부도 방아머리 갯벌에 매년 찾아온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3년에 노랑부리백로를 시조(市鳥)로 선정하였으며, 5월 9일 개최되는 '2019년 경기도 체육대회'의 마스코트로 활용하고 있다.

명노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노랑부리백로는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랑부리백로가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에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갯벌생태계 복원·보전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노랑부리백로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지켜주세요!!
이달의 보호해양생물

오늘의 우아한 신부

노랑부리백로는 백로과에 속하는 바닷새이며, 성체의 몸길이는 65~68cm이고 부리와 발이 노란색이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연상되는 순백의 깃털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번식기에는 뒷머리의 땃깃과 가슴의 장식깃이 자라나 매우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최근 서해안 연안 개발, 인간의 번식지 방문 증가 및 무인도서의 좁은 공간적 제약 등 다양한 위협요인으로 인해 노랑부리백로의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노랑부리백로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노랑부리백로는 5~8월 우리나라 서해 해안의 갯벌, 하구, 논 등에서 서식하며 어류나 갑각류 등을 주로 섭취하고, 서해안의 무인도서에서 집단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연평도 인근 번식지의 포화상태로 인해 유인도인 백령도에서 번식하는 것이 최초로 관찰되었다.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2018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랑부리백로는 우리나라 영종도, 화성, 서천 등 서·남해안 연안에서 총 166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서식지역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Egretta eulophotes

우리가 보호해야 할
노랑부리백로

해양수산부

KOEI
해양환경공단

노랑부리백로: 해양수산부 국립생태원 제공